#칠레 #콘차이토로 #RED

'마르께스 데 까사 콘차 최상위 플래그십 와인'

마르께스 데 까사 콘차 헤리티지

Marques de Casa Concha Heritage

지역	칠레 〉 마이포밸리 〉 푸엔테알토
포도품종	[까베르네 소비뇽84% 까베르네 프랑 12% 쁘띠 베르도 4%
알코올	14.5%
용량	750ml
테이스팅 노트	체리, 블랙 커런트, 블랙베리, 타르와 흑연의 풍미가 느껴지며 단단한 탄닌으로 와인의 집중도가 뛰어나다. 부드럽고 실크와 같은 텍스쳐와 와인의 구조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매운 소스를 가미한 음식, 잘 숙성된 치즈

당도 (DRY – SWEET): **1** **2** 3 4 5

바디 (LIGHT – FULL): **1** **2** **3** **4** **5**

제품설명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클래식한 프리미엄 와인의 정석' 마르께스 데 까사콘차 와인은 1718년, 당시 스페인 국왕인 펠리프 5세가 콘차이토로 가문에게 수여한 작위명으로 콘차이토로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그들의 유산을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이다. 1972 빈티지의 마르께스 데 까사콘차 까베르네 소비뇽을 런칭하면서 싱글빈야드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저가 대중적 와인산지로 여겼던 칠레 떼루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다. 마르께스 데 까사콘차는 칠레 건국 200주년 기념식에서 건배주로 사용된 바 있으며,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공식 리셉션주로 선정되면서 클래식한 선물와인이자, '대통령의 와인'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헤리티지의 경우 콘차이토로 가문과 유산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칠레 최고의 산지 푸엔테 알토의 핵심 제품이다. 푸엔테알토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카베르네 소비뇽 생산지이며 돈멜초, 알마비바, 채드윅 등 칠레를 대표하는 와인 생산하는 곳이다. 또한 칠레 대표적인 빈야드인 엘 마리스칼 빈야드 70%, 돈 멜초 빈야드 30% 의 포도를 사용하여 와인을 양조하여 프리미엄 와인의 퀄리티를 갖는다.

수상내역

2021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4점
2021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94점
2021빈티지 94점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